



그레이트 타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5-6)



가족사진: 요르단 아카바 항구, 건너편 이스라엘 땅을 뒤로하고

안녕하세요, 로고스호프에서 신선교사 가족입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23년도는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세월 속에서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느끼며 감사히 지내고 있습니다.

요르단에서의 일정은 저희 가족, 특별히 도은혜 선교사에게 정말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도 선교사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간 요르단에서 단기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런 연유로 저희는 특별히 휴가를 내어 도 선교사가 지냈던 마프락 **Mafaq**이라는 동네에 가서 현지 교회를 방문하고 목사님과 현지이웃 그리고 당시 선교 팀 리더를 만났습니다. 또한 팀원이었던 친구들(스웨덴, 벨기에)이 결혼하여 이제는 가정으로 아이 4명을 낳아 사역하는 아름다운 가족도 방문하고 한국인 싱글 선교사님댁에도 초청을 받아 한국음식을 대접받으며 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났지만 여전히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모습을 통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안이와 이안이 또한 먼 여행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고 즐겁게 같이 여행을 해 주어 더욱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요르단 왕족과 함께한 서점 공식 개장식에서



현지 학교에 페인트 봉사를 하며



현지 공공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며

요르단에서는 많은 이들이 배 서점을 찾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서 사람들이 방문해 주었고, 사역 팀들은 계속해서 학교, 장애인센터, 거리에 나가 현지인들과 교제하며 그들에게 사랑과 소망을 심어주려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 영접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해 주세요.



마프락 현지 교회 목사님과 함께



전에 한 팀으로 사역했던 동료 선교사 가정



팀 리더 가정과 함께

요르단에서 저희는 또 새로운 선교사들을 받았습니다. 매 6개월 마다 1년, 2년 선교사들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이 2월, 9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2주간 새로운 승선 선교사들을 위한 훈련 **PST:PreShip Training** 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훈련은 신 선교사가 속해있는 PD **People Development** 팀에서 맡아 주관하는 훈련으로 신 선교사는 훈련진행으로 바쁜 2주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선교사들을 받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각기 다른 배경과 문화, 언어가 다르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간증에 참 은혜가 됩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 또한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사역 가운데 불러주시고, 다듬어가시는 주님의 손 길을 매일 매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르단 아카바에서 승선한 신입 선교사들



해상 훈련 중인 신입 선교사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항구 입항 중에

요르단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희는 2월 16일 사우디아라비아로 출항하였습니다. 배 사역 52년 역사상, 처음으로 방문하는 나라였기에 저희는 설레임과 긴장으로 24시간 기도 릴레이를 시작하며 출항하였습니다. 3일정도의 항해 일정을 생각하며 제다 **Jeddah** 항구 근처에 도착하여 정박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우디 문화부의 초청과는 다르게 제다 항만청 그리고 해안 경비국의 반대로 저희의 정박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허락을 기다리며 바다 위에 계속 떠 있었습니다. 열흘 정도 후 정박 허가가 떨어져 드디어 항구에 정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저희가 현지 육상에 나가는 것도, 서점을 개장을 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항구를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리가서 정부의 여러 부처에 협조를 구했던 선발대 선교사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곳을 하루만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곤 이어서 원래 계획에 있던 사우디아라비아 지잔 **Jizan** 항구로 출발하였습니다.

지잔으로 가기까지는 2일간의 항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내무부 관계자의 지지까지 받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잔에서도 저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3주 가까이 배 밖으로 나가지 못해 힘이 들었고, 초청을 받았지만 방문할 수 없는 상황과 그 문화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조금씩 불평들이 있었고, 그 불평은 겉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쉬쉬하며 빨리 이 곳을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상에서는 사우디를 위한 24시간 기도 릴레이, 금식 그리고 예배와 찬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진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한 기도가 부족한 듯 합니다. 우리가 겪은 상황을 다 이해 할수 없지만 사우디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 적었기에 이 시간에 저희를 보내시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당장 보이지 않기에 불평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후에는 평안함과 형통함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우디에서 3월 5일 출항하여 저희는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사이에 있는 지부티 **Djibouti** 라는 나라에 3월 7일 도착하였습니다. 서점을 개장한 이후로 그동안 육지를 밟지못했던 답답함들이 풀리고 서점에 오는 많은 인파들을 만나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부티에서의 감사했던 시간은 다음 편지에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라크로 가는 중 **열흘 동안 항해**입니다. 이번 이라크 방문도 초청으로 처음 가는 곳입니다. 저희는 동역자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주시고, 계속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로고스호프가 방문했던 지난 항구들



기도해주세요

1. 요르단에 뿌린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2. 사우디아라비아의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3. 지부티에서 이라크로 가는 항해가 안전할 수 있도록
4. 이라크에서 서점을 오픈하여 현지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 질 수 있도록

이번 편지는 공개된 인터넷상에 올리지 말아주세요

로고스호프 다음 행선지

이라크. 바스라

3월 26일 ~ 4월 7일

U.A.E. 라스 알카이마

4월 10일 ~ 4월 17일

U.A.E. 두바이

4월 17일 ~ 4월 23일



QR코드 링크



카카오톡 채널 검색: '신사랑 도은혜 선교사'를 검색해주세요.